

# 美 대만에 무기 판매...미·중갈등 다시 격화

### F-16 전투기 66대 판매 결정 트럼프, 홍콩 무력개입도 경고 시진핑 "새 대장정" 장기전 채비 연내 무역협상 타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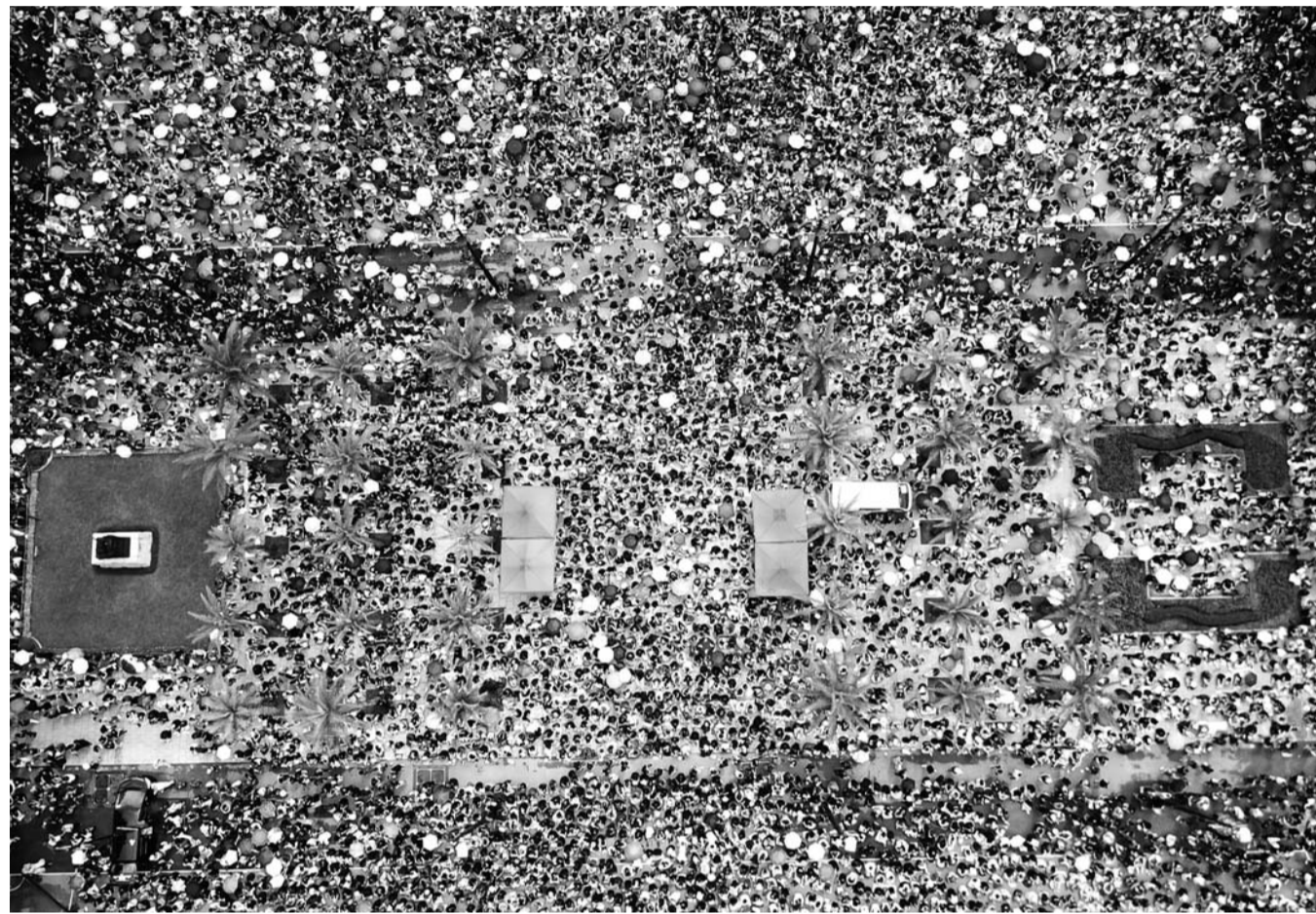
중국이 내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홍콩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이 강하게 '관여'의 뜻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에서부터 외교·안보·국방·기술·인권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이 한층 격화되면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무역협상의 동력이 다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적인 관측도 고개를 든다.

◇ 달라진 트럼프...중국의 홍콩 무력개입 '사전경고'=우선 홍콩 위기 상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한다면 양국 간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또 다른 헨안면 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중국은 지난 6월 이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반중(反中) 시위로 확산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은 검은 손을 거두려"는 거친 표현을 동원할 정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헨안면 무력 진압의 아픈 역사까지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중국이 더욱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만 무장강화 돕는 美...중 "모든 결과 美 책임"=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미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 전투기인 F-16V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미중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는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이 필수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무기를 수출해왔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에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반란군'에게 뒤에서 무기를 대어 주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적대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여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 접촉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빅토리아 공원 메운 시민들 지난 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및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北노동신문, '납북의심' 일본인 실종자 발견에 "납치 주장은 모략날조" 강제징용 부정도 맹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납북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했던 실종자들이 최근 연달아 일본에서 발견된 것을 거론하며 납치 문제는 "무근거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가리울수 없는 모략날조극의 진면모'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안팎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납치 문제를 거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베 패당의 상투적 수

법"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정실종자가 일본 땅에서 발견된 것은 최근 연간에 여러 건이나 된다고 한다"며 "그 황당하고 파렴치한 모략날조극의 진면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44년간 '특정실종자'로 분류됐던 70대 남성이 작년 11월 일본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 5월 지바(千葉)현 경찰이 50대 남성 '특정실종자' 1명의 일본 거주를 확인한 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출국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납치 피해자'로, 출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특정실종자'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어 최근 한일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아베 정권의 강제징용 과거사 부정 행태와 연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

대형 납치범죄를 안고 있는 일본이 과거 죄악을 청산할 대신 도리어 제 편에서 납치 문제를 운운하며 반공화국 도발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은 납치 문제를 약국의 감초처럼 써먹는 나쁜 악습을 버려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저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94〉 성종

성종 야율유서(971-1031)는 요나라의 6대 황제로 요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5대 황제 경종의 장자로, 모친은 소작이다. 거란 이름은 문수노(文殊奴)다. 경종은 어려서부터 신경쇠약 증세가 있고 건강이 나빴다. 오랫동안 말 위에 앉아있는 것이 힘에 부쳐 군사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부인 소태후가 정무를 사실상 관장했다. 928년 9월 경종이 죽자 성종이 열두살에 즉위했다. 소태후가 유조를 받들어 섭정에 나섰다. 그녀의 나이 불과 30세였다. 제후와 중신들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자식은 아직 어린데 군신은 강력하고 변방은 불안하니 어찌해야 하는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성정이 강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보낸다. 둘째로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요 성종은 송 진종을 형이라 부른다. 셋째로 양국은 백구하를 경계로 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후 장기간 두 나라는 싸움없이 화평을 유지했다. 부유한 복숭이 등으로 평화를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1009년 모친 소태후가 승하하자 친정에 나섰다. 경종과 소태후의 노선을 충실을 계속했다. 소태후가 발탁한 한인관료 한덕양에게 크게 의지했는데 그는 101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묘사는 그에 대해 "장군과 재상의 직위를 겸하였다. 지혜를 다해 나라에 헌신하였으니 공훈과 담력이 대단하다"라고 기록하였다. 한족의 선진 문화를 적극 수용해 국정개혁에 나섰다. 복숭이의 과거 제도를 모방해 과거를 통해 인재를 발탁했다. 성종 시기 다수의 청렴하고 유

### 요나라 전성기 이끈 5대 황제

어나 한인 사대부 한덕양과 야율사진, 야율유가 등의 보좌에 힘입어 조정을 안정시켰다.

한인 관료를 기용해 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였다. 북송과의 군사적 대치가 국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해 북송에 대한 친정에 나섰다. 일찍이 북송의 태종 조광의는 오대(五代)를 멸망시킨 후 유주를 공략하였다. 베이징 주변의 고랑하에서 거란과 일전을 벌였으나 참패했다. 986년 태종은 이 싸움에서 송의 명장 양복이 요나라에 생포되어 감옥에서 자살하는 수모를 겪었다. 북송은 거란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태종의 뒤를 이은 진종도 이러한 정책을 계승했다.

소태후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북송의 수도 개봉과 100km 정도 떨어진 전연에 주둔했다. 송의 진종은 재상 구준의 건의를 수용해 친정에 나섰다. 양군이 대치하는 가운데 소태후가 신임하는 소달를 장군이 송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그녀는 크게 낙담해 결전을 피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화의로 돌아섰다. 1004년 양국은 '전연의 맹'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송은 매년 세페로 거란국에 은

능한 관리가 배출되면서 공직사회의 기풍이 크게 일신되었다. 법치(法治)의 확립에도 노력했다. "무릇 법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힘을 사용함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의 형량을 줄이고 간소화 했으며 거란인과 한인과 이 양형 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했다.

또한 다수의 노예를 해방했다. 포로로 잡힌 한족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궁인과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재차 북벌을 추진했으나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 싸움에서 송의 명장 양복이 요나라에 생포되어 감옥에서 자살하는 수모를 겪었다. 북송은 거란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태종의 뒤를 이은 진종도 이러한 정책을 계승했다.

회를 정복하여 서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993년, 1010년, 1018년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북속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성종은 황후 소보살가 사이에 후사가 없어 궁녀 소누군에게서 후계자인 흥종 야율중진을 얻었다. 성종 사후 흥종황후 소누군이 인척황후 소보살가를 꾀박해 죽게 만드는 황실내 분쟁이 촉발되었다. 성종은 요나라의 성주(聖主)로 그의 치세 중 주변국을 호령하는 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1031년 3월 행궁에서 승하했는데 49년간 재위에 있었다.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 문 | 신 학 과                                 | 30  | 15  |
|     | 한국어교육학과                               | 2   | 2   |
| 사 법 | 유아교육과                                 | 7   | 3   |
|     | 복지상담융합학부<br>(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31  | 3   |
| 예 능 | 음악학부<br>(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5  | 5   |
|     | 총 계                                   | 95  |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대학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학원     | 과정 | 모 집 학 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24   |
|         |    | 목회학과(D.Min.)    | 2    |
| 일반대학원   | 박사 | 유아교육학과(D.Ed.)   | 3    |
|         |    | 신학과(Th.M.)      | 10   |
|         |    | 유아교육학과(M.Ed.)   | 6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1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4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